



북자호랑하늘소 / *Xylotrechus clarinus* Bates, 1884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|
| 생물분류 | 곤충 |
| 속국명 | 호랑하늘소속 |
| 과국명 | 하늘소과 |
| 과명 | Cerambycidae |
| 일반특징 | <p>몸길이는 9~16mm이다.</p> <p>앞가슴등판은 검은색이며, 앞, 뒤, 옆면에는 부드러운 노란 털들이 뺨뺨하게 모여 있다. 이마 중앙에는 세로로 'V' 모양 선이 올라와 있다.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고, 표면에는 작고 거친 점무늬들이 퍼져 있다.</p> <p>딱지날개의 길이는 너비의 약 2.2배이고, 어깨 부위에는 부드러운 털로 된 노란 띠가 비스듬히 나 있다. 딱지날개 끝에는 작은 돌기가 바깥을 향해 있다. 수컷의 더듬이는 앞가슴등판을 넘는 길이이지만 암컷은 그렇지 않다. 또한 수컷의 딱지날개 가장자리는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지만, 암컷은 평행하다.</p> <p>번데기에 대한 특징은 알려져 있지 않다.</p> <p>애벌레는 흰색이고 길쭉하다. 머리는 앞가슴에 들어가 있으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. 더듬이 첫 번째 마디의 길이는 나머지 마디보다 길다. 윗입술은 흰색이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다. 앞가슴등판은 볼록하고 앞쪽이 둥근 편이며 1/3 지점에는 가로로 노란 점 2개가 있다. 등판은 전체적으로 딱딱한 편이다. 중간 및 뒷가슴복판은 볼록하고 짧은 털들이 모여 있다.</p> <p>알은 흰색이고, 앞쪽 끝 부분은 넓고 둥글며 뒤쪽 끝 부분은 좁고 뾰족하게 둥근 모양이다.</p> <p>자작자무류의 잘린 나무에 모여든다. 러시아에서는 갈잎나무 숲에 서식한다. 암컷은 죽거나 쓰러진 먹이 식물의 굵은 줄기에 알을 낳는다. 애벌레의 모습으로 겨울을 난다.</p> |